



‘조루’ 방치맨 발기부전 된다

글_ 박천진 강남 J비뇨기과 원장 pcjinhee@hanafos.com

실제 임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**신**는 대목이다.

33세 대기업 대리로 신혼초부터 조루 증상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가 최근 결혼 3년만에 발기도 잘 안되어서 비뇨기과 병원 문을 두드린 예가 있다.

이 분과 충분한 상담을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.

첫 번째로 무지이다. 부인도 처음 신혼 때는 원래 남자들은 그런 가보다 하고 지낸 것이다. 1분 정도 안에 사정하는 것을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.

두 번째로 점점 결혼생활과 부부관계를 가지면서, 부인이 좀 불평을 하게 되면서 신경이 쓰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관계 할 때마다, “또 1분 땡이면 어떻게 하지” 하는 불안감과 염려감이 있으면서, 성행위중에 슬그머니 아랫 부분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가

이때부터, “야 큰일 났구나, 조루에다 발기부전까지 왔구나”, 매우 당혹스러워 그날 밤 뒤통수에 아내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한잠도 못자고 병원에 부러 나게 온 것이다.

이 분에게는 전체적인 충분한 상담과 성기능검사를 했다. 별다른 이상 소견을

발견하지 못했다.

단 조루검사에서 음경에 대한 진동반응 검사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는 국소감각이 매우 민감함을 발견하였다. 우선 이 분에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기질적인 발기부전증이 아니고 너무 빨리 사정하는 것이 염려되어서, 마음 편하게 성행위에 몰두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증이므로 조루증상만 회복되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안심시키고, 먼저 음경 부분에 바르는 국소부분마취치료제로 조루를 치료하게 되었다. 이 분은 성행위시에 조루증상에 대한 불안과 염려감에서 벗어나게 한 처방이었다.

매우 효과적이었다. 발기부전 증상도 저절로 회복되었다.

하지만 매번 음경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음경에 분포하는 감각신경만을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차단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.

이런 경우에 시술 후 효과는 매우 높아서 90%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임상경험이다.

조루증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

같다.

▲ 전희 과정을 효과적으로 서로 노력해서 서로의 극치감 시간을 맞추라는 것이다. 이 때 성테크닉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.

▲ 조루증은 감추려고 하지 말고, 비뇨기과 문턱을 낮추어서, 적극적으로 전문의의 조언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.

심인성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약물요법, 행동요법을 적용하게 된다.

▲ 국소 부위의 과민성 때문에 성반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. 약제란 바로 바르거나 뿌리는 조루치료제이다. 이 때 방법에 효과적인 분들은 반영구적인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.

가장 효과적인 수술적 조루의 대상은 발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, 시중에서 판매하는 바르는 조루치료제 혹은 뿌리는 조루치료제가 효과적이라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술적 조루치료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. ㉔